

우리웃놀이 세대 전승 사업 '탄력'

한국전통문화전당,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지역의 전통문화 관련 공동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최근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3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2억 원(국비 1억원, 시·도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2023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이 강한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 중독의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 연구, 전승활동(교육) 지원으로 지역 전승공동체 발굴·육성 및 공동체 주도 전승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12월 공모를 진행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웃놀이'가 지난해 공동체 중독으로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우리웃놀이 세대 전승 사업' 명으로 공모를 신청,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번 공모신청에 따라 전당은 2억여 원을 투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중독인 '웃놀이'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관련 공동체의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

특히 △지역 현지조사를 통한 웃놀이 연구조



한국전통문화전당 전경

사 △전통놀이문화포럼 △웃놀이 교구·교재 등 콘텐츠 제작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웃놀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그동안 전당에서 심혈을 기울여 왔던 '웃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고, 또 공모신청을 통해 세

대를 넘어 전승되는 계기가 마련돼 영광"이라며 "다양한 웃놀이 세대전승 지원 사업을 통해 전승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웃놀이 세대 전승사업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리웃놀이진흥팀 전화(063-281-1541)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영국 '리베라' 소년합창단, 익산 상륙

익산예술의전당서 8일 내한공연

힐링 뮤직의 진수인 영국 리베라 소년합창단이 오는 8일 오후 3시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내한공연을 가진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국 런던 남부출신의 소년들로 구성된 '리베라'는 유럽에서 '현대의 모차르트'라 불리는 천재 지휘자 겸 음악감독 로버트 프라이즈만(Robert Pritzman)이 결성한 소년합창단이다.

소년 소프라노를 중심으로 난이도 높은 음악의 편곡으로 전상의 음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유수의 소년합창단 중 유일한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로 이어졌다.

이번 공연은 파헬벨의 캐논을 편곡하여 리베라의 장기인 고음을 한껏 활용한 'Sanctus', 중세의 신비로움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Voca Me', 성체를 찬미하는 기도문을 가사로 하여 리베라만의 독특한 효과를 나타내는 'Ave Verum', '허버트(Herbert)'의 시 'The call'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Come my way' 등을 연주한다.

특히 이 공연에서는 30명의 소년들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오보에, 드럼 등 12명의 챔버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풍성한 음악을 들려주며, 매곡마다 어울리는



조명 효과로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티켓은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이며,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무료 회원에 가입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전화(063-859-325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우리 민족 '일제 항거 대표적 사건' 사진으로 만난다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 독립기념관 순회전시 개최

우리민족이 일제에 항거한 대표적 사건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이하 기념관)은 오는 7월 30일까지 독립기념관 순회전시 '사진으로 보는 한국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 20선'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우리 민족이 일제에 항거한 대표적 사건을 20점의 사진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주제는 독립기념관(관장 한시준)에서 진행한 국민투표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자료는 △의병 활동, △오산학교, △안중근 의사 의거, △2.8 독립선언, △학생비밀단체, △윤봉길 의사 의거, △조선어학회 등 일제강

점기 주요 항쟁과 관련 인물 사진으로 구성됐으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기념관 내에는 태극기 만들기, 태극기 전달하기, 만세운동 전파하기, 독립기념관 촬영 등 체험교육 공간을 조성해 전시의 내용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기념관 관계자는 "역사적인 장면과 중요 자료가 담긴 사진을 통해 한국 독립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한 선조의 행적을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하여 기념관을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면서 "끝으로 사진과 기록에 남지 않았으나 조국의 독립에 헌신하였던 모든 선조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함께하는 우리' 시민 연주자 모집

군산시립교향악단이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교향악단과의 연주를 희망하는 시민 연주자를 모집한다.

시립교향악단은 제69회 특별기획연주회 '함께하는 우리'에 군산시 음악인과의 협연으로, 프로와 아마추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애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을 기획했다.

이번 연주회는 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아 예술단 공연을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민 연주자들은 오는 5월 25일 오후 7시 30분 시립교향악단 제69회 특별기획연주회에 사운드 오브 뮤직, 클래식

모음곡, 티코 티코 등의 곡을 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하게 된다.

참가신청 접수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모집분야는 현악부, 관악부, 타악부다. 참가자격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주소를 둔 국내외 초, 중, 고 대학교 재학생이면 된다.

접수방법은 참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예술의전당 내 군산시립교향악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문화활동 단체 선정

진안군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문화적 감성지수를 높여줄 202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9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단체는 느티나무양살불(백현숙), 마이골음악회(송현문), 마이소리합창단(양준호), 마이빅밴드(정성영), 마이산사진연구협회(정길웅), 예술공감 모음(정병희), JBS연출(김원), 한빛음악회(이갑수), 꽃다지예술단(서문형인) 등 9개다.

해당 단체들은 총 사업비 2,500만원(전액 군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문화예술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 음악회, 연극, 국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펼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마당 '소리 판'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8일 판소리마당 '소리 판' 무대를 통해 이성현의 김세종제 춘향가 완창무대를 6시간 동안 선보인다.

이번 완창무대의 주인공인 남원시립국악단의 젊은 소리꾼 이성현은 네 살 때 소리에 입문해 국악 신동으로 불리며 김세종-정응민-조상현 명창의 뒤를 잇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수자이며 제5회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부문 금상과 제21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명창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인 2022년 제32회 KBS국악대경연 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금상과 더불어 종합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공연은 전화(063-620-2329) 또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